

소식

협·회·소·식

국립중앙도서관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

- 문화관광부에 국립중앙도서관 민영화 논의 관련 의견 전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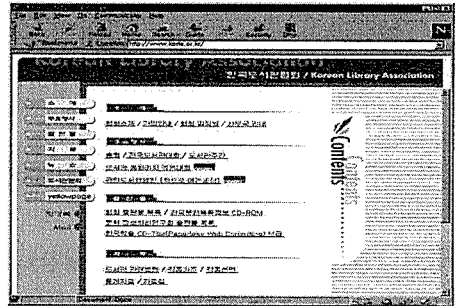
5월 25일 새 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 각 부서에 통보한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지침”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을 포함 현 정부의 96개(문화관광부 소속사업 10개=국립중앙극장 운영, 정부간행물 및 영상제작, 도서관정보화사업,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국립자연사박물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궁능원관리, 민속박물관운영, 박물관운영, 중앙도서관운영) 재정사업을 민간에 위탁경영할 예정이라는 것인데 국립중앙도서관의 민영화 추진 검토 소식에 경악한 모든 도서관계는 예산절감의 구실로 한 나라의 지식 및 정보문화를 총괄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발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협회가 문화관광부장관 및 각 언론사에 전달한 의견과 성명문은 자료 ①(64쪽) 참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la.or.kr>) 개설

우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la.or.kr>)가 개설되었다. 전국도서관 인터넷 홈

페이지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중반부터 일부 가동되었던 우리협회 홈페이지는 현재 ▲ 소개(협회소개/가입안내/협회 임직원/사무국 안내 등)



- ▲ 주요행사 (총회/전국도서관대회/도서관주간 등)
- ▲ 출판물(협회 출판물 목록/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문헌정보처리연구회 출판물 목록/한국학술 CD-Title 보급 등)
- ▲ 자료(도서관및독서진흥법/도서관인 윤리선언/UNESCO공공도서관선언 등)
- ▲ 뉴스(협회 소식/도서관계 소식)
- ▲ 도서관문화(원고투고요령/목차)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성동구·중랑구립도서관 민간위탁

검토 계획 철회 요청

- 중랑구는 민간위탁을, 성동구는 직접 운영을 선택 -

4월 말 우리협회에서는 올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립도서관(12월 개관 예정) 및 중랑구립도서관(9월 개관 예정)이 운영재원 조달 어려움으로 교육청에 운영이 위탁되거나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을 접한 후, 설립관청에서 직접 도서관을 운영해 줄 것을 희망하는 공한을 성동구청장 및 중랑구청장 앞으로 발송하였다(관련자료 66쪽 참조). 위의 두곳을 포함 최근 서울시의 1구 1공공도서관 정책에 따라 건립되고 있는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재원부족에 따라 개관이후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6월 12일 구립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개최한 중랑구청은, 9월 개관을 앞두고 그 동안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해 교육청 및 시에 건의하였으나 예산 및 인력난을 들어 난색을 표함에 따라 구립중앙도서관 운영을 민간 공익법인이나 사회봉사단체에 운영위탁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성동구청은 구에서 직접 운영기로 결정함으로써 중랑구청(민간위탁)과 성동구청(구직영)의 향후 성과가 나머지 8개 구(관악, 광진, 서초, 강북, 성북, 은평, 금천, 중구) 공공도서관 및 기타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사서업무 포함시킨 시행령안 규정 삭제 요청 -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입법예고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사서’가 파견근로의 허용업종에 포함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노동부로 제출하였다(관련자료 67쪽 참조). 노동부는 지난 2월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가의 기준 등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시행

령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는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등 27개인데 이 가운데 ‘사서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독서교육과정 담당은 사서교사 대신 국어교사 활용” 교육부장관 발언 관련 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촉구

우리협회에서는 교육부장관과 출판계 인사와의 조찬석상에서 일부 출판계 인사가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채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예산문제를 들어 이를 일축했다는 언론의 보도(경향신문 1998. 6. 11)를 접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관련자료 68쪽 참조).

대구·경북지구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일자 : 1998년 4월 24일(금)

장소 : 경북상주도서관 시청각실

내용 :

- 기초강연/술(酒)에 관련된 기록의 서지적 고찰(남권희/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97년도 사업실적, 세입, 세출결산 및 감사보고
- '9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공로패수상자명단 :

- 이순호(경북대도서관 사서주사)
- 천해득(영남대도서관 열람과장)
- 정경환(대구동부도서관 사서과장)
- 장창희(대구서부도서관 사서주사)
- 김해관(대구중앙도서관 사서주사)
- 이이중(경북점촌도서관 사서주사)

박이현(경북예천도서관 사서주사)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총회 개최

일자 : 1998년 7월 3일(금)~4일(토)

장소 : 충북대학교도서관

연락처 : 0652-270-3454

**전문대학교서관협의회, 제3회 총회 및
사서직무교육 개최**

일자 : 1998년 5월 28일(목)~29일(금)

장소 : 수안보한화콘도

내용 :

- 학술정보서비스의 현재와 미래(한혜영/첨단학술정보센터 팀장)
- 도서관 전산화 구축과 그 활용 사례(남시우/인덕대 도서관 주임)
- 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구축사례(이준승/전주기전여자대학 도서관 사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98여름세미나 개최

일자 : 1998년 7월 8일(수)~10일(금)

장소 : 설악웰컴콘도미니엄

주제 : 비도서 자료(시청각자료 포함)

전자도서관 Solution

학위논문, 학위논문 웹 검색

Internet 정보보호 대책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기술세미나 개최

일자 : 1998년 6월 25일(목)

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강당(일산)

주제 : 정보저장매체 및 활용 네트워크에 관한
최신기술 동향(III)

내용 :

- 건설분야 첨단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원문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Techno 2000)
- Web기반 통합 학술정보 서비스(EBSCO)
- Web DB와 전자저널을 이용한 과학기술 정보의 효율적인 서비스(신원데이터넷)
- 국가서지 공동활용 체제에서의 전자도서관 해법(오름정보)
- 과학기술 온라인 DB소개(KIN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제6회 DB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일자 : 1998년 6월 23일(화)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회의실

주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전략

내용 :

- DB(IP)산업의 특성과 육성 방향(이두영/중앙대 교수)
- DB(IP)업계의 문제와 대응전략(진영돈/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정보통신부의 DB(IP)산업 육성 정책(김호/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장)
- 주요선진국의 DB육성정책(정현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유통연구실장)
- DB(IP)산업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강홍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각·종·행·사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세미나 개최

일자 : 1998년 5월 21일(목)
 장소 : 서울목동도서관
 주제 :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자 :
 김윤배(성결대 경영학과 교수)
 김지봉(경기도립포천도서관장)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전남공공도서관연구회, 춘계 세미나 개최

일자 : 1998년 5월 29일(금)
 장소 : 목포공공도서관
 주제 : 도서관에 가서 보면 길이 보인다
 내용 :
 · 정보화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정준민/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장흥공공도서관의 문화행사 사례발표(유미라/장흥공공도서관 사서)

한국문헌정보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일자 : 1998년 4월 24일(금)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내용 :
 · 대학도서관 경영규모의 경제성 평가(윤희윤/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 연구(구본영/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락처 : 02-760-2322, 0330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강좌 개최

일자 : 1998년 5월 22일(금)
 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지하 영화관
 주제 :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내용 :
 ·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고영만/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멀티미디어 표준과 플랫폼(이의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연언어처리연구실장)
 · 멀티미디어 색인(최석두/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멀티미디어 DB의 개발과 활용(맹성현/충남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 멀티미디어 DB 구축 사례(김문호/LG EDS사업본부장)

한국정보관리학회, 8월 학술대회 개최 예정

일자 : 1998년 8월 19일(수) -20일(목)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내용 : 문헌정보학 전분야 논문 발표
 (현재 논문모집 중)
 안내 : <http://kosim.yonsei.ac.kr>

한국도서관·정보학회, '98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발표회 개최

일자 : 1998년 6월 26일(금)
 장소 : 경성대학교
 내용 :
 · 기본표목의 기능에 관하여(김태수/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에 관

- 한 연구(김성수/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환기 한국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제환/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19차 문정포럼 개최

일자 : 1998년 5월 12일(화)
 장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주제 : 국가기록보존의 현실과 전망
 발표자 : 김선영(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장)
 토론자 :
 최정태(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동철(부산대 사학과 교수)
 연락처 : 051-510-1562

**송실대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개관기념
세미나 개최**

일자 : 1998년 5월 7일(목)
 장소 :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 예배실
 주제 : 21세기 대학 전자도서관 발전방향
 내용 :
 · 21세기 전자도서관 소개(김진형/연구개발
 발전센터 소장)
 · 국가전자도서관 시범사업현황과 발전방향
 (강한배/국회도서관 전산개발과 과장)
 · 전문학술정보센터 설립지원정책(고 용/교
 육부 학술정보지원과 과장)
 · 전문연구정보센터의 역할과 발전방향(정
 현희/한국과학재단 연구진흥과 과장)
 · 대학 전자도서관 현황과 발전방향(김성혁
 /숙명여대 교수)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98포럼 개최

일자 : 1998년 5월 8일(금)

장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주제 : 디지털도서관은 가상대학&멀티미디어
 교실의 심장부

- 내용 :
- 우리 나라 교육정보화의 방향(교육부)
 - 가상대학 프로그램 운영 방안(김영환/부
 산대 교육학과 교수)
 - 디지털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가상대학 실
 현 방안(김용철/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디지털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가상대학&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정보산업체 전문
 가)

연락처 : 0343-96-5011

'98서울국제도서전세미나 개최

일자 : 1998년 5월 15일(금)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4층 대회의실
 내용 :
 · 국민의 정부에 바라는 출판진흥정책(김언
 호/한길사대표)
 · 국민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방안(유재천/한림대교수)
 토론자 : 오지철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광병선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조원호 한국도서관협회사무총장
 이정춘 한국언론학회회장
 김영표 신구대교수
 윤청광 동국출판사대표
 최선호 대한출판협회사무이사

도·서·관·개·관

■ 성산일출도서관

개 관 일 : 1998년 6월 12일

주 소 : (699-900)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1138-21
전화번호 : 064-83-4227

회·원·동·정

■ 함명식 회원, 제64차 IFLA총회 주제발표

함명식 회원이 8월 15일 부터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제64차 IFLA 총회의 Contributed Session에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논문 제목은 “Media Skills of school librarians to teach the new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in schools”으로 이병기, 송기호, 박현주 사서교사와의 공동 연구물이다.

■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전화번호가 4월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대표전화 0342-734-3486에서 0342-734-3486
관 장 실 0342-43-2684에서 0342-734-3604
서 무 과 0342-43-2685에서 0342-734-3606
사 서 과 0342-43-2731에서 0342-734-4393
열 램 과 0342-734-3486에서 0342-734-4394
문헌정보실 0342-734-3486에서 0342-734-4395로

■ 경북울릉공공도서관, 신축 개관

경북울릉공공도서관이 도서관 단독 건물을 신축하고 5월 27일을 개관하였다. 주소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40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전화번호는 이전과 동일하다.(연락처 0566-791-2294)

■ 육군종합군수학교도서관, 연락처 변경

5월말 육군종합군수학교의 이전에 따라 육군

종합군수학교도서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 소 : (305-153)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401
전화번호 : 042-870-5230

■ 첨단학술정보센터, 학술정보 인터넷 서비스 본격 가동

지난해 12월 부터 시범운영되어 오던 ‘학술정보서비스’가 5월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원하는 국내의 첨단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 정보센터인 첨단학술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학술정보서비스에는 △도서종합목록(전국 1백2개 대학도서관 소장 4천 2백만권) △해외학술정보 △학술지논문 학술지원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ric.ac.kr> 임.

■ 한국사회과학도서관, 「사회과학분야 국내외 학술지 색인정보」 천리안 서비스 제공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이 국내 최초로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저널 2천 1백종 50만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5월 12일 부터 천리안(접속 go kssl)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록범위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내학술지(6백여종)와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해외학술지(1천 5백여종)이다. <연락처 :02-738-5015, 739-9258>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 개관

5월 초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백남(百南) 학술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신축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대지면적 389,894㎡ (117,943평), 연면적 20,494.1㎡(6,199.5평) 지하3층 지하6층, 자

유열람석 2,325석 개가열람석 1,742석 규모로 200석을 갖춘 국제회의장 1실 및 세미나실 6실도 갖추고 있다.

신·입·회·원

※ 환영합니다 ※

〈단체회원〉

- 안양시립호계도서관('98. 2. 27)
- 옥천전문대학도서관('98. 3. 23)
- 한라전문대학도서관('98. 3. 30)
- 부천전문대학도서관('98. 4. 1)
- 부산광역시강서도서관('98. 4. 7)
- 승문고등학교도서관('98. 4. 8)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98. 4. 9)
- 수원전문대학도서관('98. 3. 27)
- 영산대학교도서관('98. 4. 25)
- 가평군립도서관('98. 4. 27)
- 한국산업대학교벽강중앙도서관('98. 5. 7)
- 대신대학교도서관('98. 5. 9)
- 청양전문대학도서관('98. 5. 11)

〈개인회원〉

- 보통회원
- 박명남(대구교육대학교도서관, '98. 4. 6)
- 이은경(공주중학교도서관, '98. 4. 7)
- 정달수(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도서관, '98. 4. 11)
- 이윤아(건설공제조합기획부도서관, '98. 4. 20)
- 유석재((주)한국비전, '98. 4. 24)
- 조수련(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98. 4. 23)
- 정유라(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도서관, '98. 4. 29)
- 이종현(행정자치부정부기록보존소, '98. 5. 15)
- 진창남(제주교육대학교도서관, '98. 5. 9)

- 박금희(계성초등학교도서관, '98. 5. 13)
- 장문중(국회도서관, '98. 5. 14)
- 권오석(삼척대학교도서관, '98. 5. 15)
- 안남신(한국교육과정평가원, '98. 5. 18)
- 이은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98. 5. 18)
- 백수정(전남대학교도서관, '98. 5. 19)
- 안계성(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98. 5. 21)
- 이양선(행정자치부정부기록보존소, '98. 5. 21)
- 정화숙(보훈연구원, '98. 5. 25)

· 평생회원

- 한재환(대구광역시북부도서관, '98. 3. 30)
- 염권철(제주전문대학도서관, '98. 4. 20)
- 김효순(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98. 4. 24)
- 내미영(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98. 5. 6)

사·무·국·일·지

- 4월 24일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에 화환 보냄
- 4월 27일 협회 사무국 춘계 체육대회
- 4월 28일 1998년도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
- 4월 30일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 '98봄판 발행
- 5월 8일 신임 회장단, 문화관광부장관 면담
- 5월 15일 조원호 사무총장, 서울국제도서관전 세미나 토론 참가
- 5월 21일 이용훈 기획부장,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세미나 강연
- 5월 28일 ~29일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에 화환보냄
- 5월 30일 국민독서캠페인 관련
 - 독서세미나 “독서와 정보의 세

- | | |
|---|--|
| <p>계” 세미나 개최
· 알뜰도서관교환전 개최(31日까지)</p> <p>6월 9일 · 문화관광부에 “국립중앙도서관
민영화 논의 관련 의견” 제출
· “국립중앙도서관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 성명서 발표</p> | <p>6월 12일 이용훈 기획부장, 중랑구립 공공도
서관 운영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p> <p>6월 16일 제64차 IFLA총회 참가자 간담회
개최</p> <p>6월 23일 이두영 회장, 제6회 DB산업 활성
화 세미나 주제발표</p> |
|---|--|

▶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 기탁을 위하여 성금하신 분들('98. 1.~6. 합계 100,000원, 누계 19,337,949원)

❖ 고맙습니다 ❖

이병원(경북도립상주도서관) 10만원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도서관인 여러분들의 성금 기탁을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圖書館文化 95년 9·10월호 35p-41p, 11·12월호 29p-32p, 96년 3·4월호 66p-70p 참조)

- 은행계좌번호 : 국민은행 / 088-25-0011-260 / 한국도서관협회
- 상담·문의 : • 전화 (02)535-4868 • FAX (02)535-5616

45년간 미국 의회도서관 한국부 책임자로 근무한 원로 사서 량 기백(key. P. Yang)박사의 저서!

제1권 한국학 위해 엮은 글 한아름

Bibliographical works for korean studies

1. 한국서지 I 이란말 저런말
Korean Bibliography (I) : Lexical potpourri
2. 한국서지 II 역사적 문헌
Korean Bibliography (II)
Newspaper Articles on Books and Documents disinterred

3. 한·중·일 전통사회 말모음

Medley of Quotations on Traditional Society of
Korea, China and Japan

제2권 생각해 하는 말과 글

Quotations to ponder : An anthology

제3권 연대대조표

Chronological Table of Dynasty Reigns of
Korea, Japan and China

- 구입문의 : (주)바우하우스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9 우영빌딩 3층
전화/02-555-5530 • 팩스/02-555-0094

- 책값 : 제1권/28,000원, 제2권/7,000원, 제3권/3,000원

〈성 명〉

국립중앙도서관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

문화관광부 직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이른바 민간이양 및 요역전환 검토 96개 사업에 포함시킨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의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지침”에 관한 최근 보도를 보고, 우리 협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그 불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기본권 보장은 정부의 책임

국민이거나 지역주민이거나 요컨대 공공(公共)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은 18세기 인권혁명이래 시민이 쟁취한 권리였다. 이 권리는 지식과 정보가 일부 사회 계층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는 민중적 저항에서 얻어진 것으로, 헌법적 개념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소위 수익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확립된 것이고, 물론 오늘날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로 신봉되고 있는 것이다.

즉 도서관은, 기본권의 하나인 국민의 ‘알 권리(知的自由)’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로서, 이는 국가(정부)가 그 어떤 자에게도 떠넘길 수 없는 고유의 책임인 것이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민족문화의 대동맥

위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체화 시킨 것이 곧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인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적 기록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영구보존하면서 이를 후세에 전승하고 이용케 하는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족의 총체적 기억(記憶)을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유효·적절하게 재생,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조의 끊임없는 꿈을 이어가려는 국가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원대한 이념과 거대하고도 치밀한 메카니즘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해 버리겠다는 말인가.

3.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도서관정책의 집행 기관

각 종 각 급 도서관으로 이루어지는 한 나라의 “도서관체계”는 그 나라 그 민족이 지니는 기억의 총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8천여개의 학교도서관, 388개의 대학도서관, 443개의 전문·특수도서관, 그리고 37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들 도서관으로 구성되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체계를 하나의 망(網)으로 연결하여 그 정점에서 이들을 통괄하고 지도·지원하는 지위와 역할을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다. 이 고도의 정책적 기능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말인가.

4.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

오늘의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국가”의 벽을 넘어 “세계”의 문제로 치닫고 있다. 각 국가의 정부는 정보의 생산과 조직 및 가공, 그리고 그 세계적 공유(共有)라는 과제를 위하여 일정량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갖도록 되었다. 이 같은 범세계적인 사업은 이미 ISO나 IFLA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국가간의 협력을 위한 권한과 책임 등의 조정이 시작되지 이미 오래되었고, 앞으로도 한층 더 국가 간의 교섭과 절충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국가적 역할은 각 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외없이 채택, 가동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나라 역시 법률로 국립중앙도서관을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언필칭 “세계화”를 말하면서, 국가대표도서관을 어찌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말인가.

5. 세계 유례 없는 국가대표도서관의 민영화

문헌정보에 관한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하고 미묘한 교섭에서 자국을 대표하여 당사자가 되는 국립 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이라고 한다. 정보사회의 심화현상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쟁적으로 자국의 국가대표도서관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이 시대에 우리 만이 국가대표 도서관을 민간에게 맡겨 놓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다.

6. 경제논리에도 분별은 있어야

공공 목적의 도서관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이므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자체 수입은 한 푼도 없는 기관이다. 소위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할 출발점 요소가 없는 것이다. 오직 국가적 목적과 소망, 그리고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 주는 한 민간에 넘기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강변하려면, “국가의 기능 중에서 민간에게 맡겨버리지 못할 일이란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한다. 말이 되겠는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도서관의 민간이양은, 이 나라 백년대계의 터전이 되는 문화정책을 경제논리라는 잣대하나 만 가지고 분별없이 처단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 시대, 우리의 국민정부가 이 같은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란다.

1998년 6월

한 국 도 서 관 협 회

(공 한)

수신 문화관광부장관
참조 도서관박물관과장
제목 국립중앙도서관 민영화 논의 관련 의견

최근 정부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립중앙도서관을 민간이양 및 용역전환 검토 96개 사업에 포함시킨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지침”을 발표하였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 도서관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설립·운영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및 정책적 기능, 그리고 경영원리의 특이성 등으로 보아 절대로 민간에게 맡겨 둘 사업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정보사회에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서관정책을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항상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귀부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고 단호한 정책 판단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삼가 건의 드리오니 국립중앙도서관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실까 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정리한 글 “국립중앙도서관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첨부하였사오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협회 의견 글 “국립중앙도서관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 1부. 끝.

수신 ○○구청장

참조 문화공보담당관

제목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일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청에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올 12월에 개관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서관을 건립, 개관하고자 하는 귀청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은 민주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장치이며, 정보화 사회를 지탱하는 기간시설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기관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건립과 운영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귀청에서 새로이 도서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밀착된 자치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개관을 앞두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조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협회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와 관련, 교육청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심지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항구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이라는 기본원칙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재원은 우선적으로 귀청에서 주민들과 협력하여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양해하시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 정책의 우선권을 부여해 주신다면 보다 적절한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이번 귀청의 도서관 건립, 운영 소식에 매우 고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귀청에서 직접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운영, 향후 모든 도서관 운영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필요하시다면 우리협회로서도 가능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 다시 한번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도서관 개관에 따른 현안 해결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자료 ③ ◀

〈노동부에 제출한 의견〉

수신 노동부장관

참조 고용관리과장

제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노동부공고 제1998-27호(1998.4.29)와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협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 1) 파견근로 허용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서'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 2) 사유 : 별첨
- 첨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입장 및 의견서 1부. 끝.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입장 및 의견

금번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안)' 제2조 1항 [별표1.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243항목 중 '사서'를 포함시킨 것은 옳
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외해야 할 사유

-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에서 사서를 '장서,
정기간행물, 기록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
개발하고 유지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
는 자로서, 도서관 장서의 취득, 분류, 목록작
성, 진열, 배부 및 이들의 대출, 반환 등을 조
직 및 관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서업
무는 기술적인 전문능력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대인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러한 사서업무는 파견근로에 적합치 않음.

- ② 도서관이 수행하는 정보봉사 및 교육적 기능
은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對人奉仕
가 핵심으로 이는 "사서집단의 시스템"이 효율
적으로 가동해야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기능수행을 단기간적이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파견근로자에
게 담당케 할 경우 이러한 사서집단의 시스템
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결국 도서관 기능의 부
실로 이어져 관련된 모든 사람이나 조직에 좋
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③ 사서가 수행하는 도서관업무는 그 성격상 장
기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맡길 경우, 그 근무기간
이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어 결국 사용사업
자가 의도하는 바, 건실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을 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사서업무는 파견근
로자가 담당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
으므로 이를 포함시킨 것은 적절치 못함.

- ④ 사서가 제공하는 업무는 전문능력을 요하는
서비스로 질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함. 그렇
기 때문에 파견사업자, 사용사업자 및 파견근
로자 상호간 업무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당한 견해차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러한 분쟁
의 경우 파견근로자인 사서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에도 부합하지 않음.

- ⑤ 사서의 업무 중 일부, 즉 사무처리 등의 업무
는 파견근로자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이 경우에도 이미 제시한 27개 업종 중 414항
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의 여러 이유
로 243(정확하게는 24321)항목의 '사서'는 파
견근로 허용업종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해찬 교육부장관님께 드리는 말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백년대제라 하는 교육의 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관님께서서는 향후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라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향후 교육의 방향을 독서의 활성화로 정하시고 이를 적극 교육현장에 반영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에 대해 이는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미래를 담보해 내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도서관계는 앞으로 장관님의 정책적 입장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거두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관님께서서는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채용하지는 일부 출판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 학교에 교사를 한 명씩만 늘려도 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일축한 뒤 「그 대신 국어교사들의 정기연수에서 독서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언론의 보도 (경향신문 1998.6.11. 14면)를 접한 우리협회로서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과연 장관님께서 정말로 독서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자 하시는 것인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독서를 정규교과화하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이를 위한 전문교사는 예산상 이유로 채용하지 못하겠으니 기존의 교사들을 활용해 보겠다고 하신 것은 학교교육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우리 도서관계는 결국 독서교육 강화라는 것도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이러한 독서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학교에 모두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학교도서관과 이를 담당할 사서교사 배치입니다. 따라서 만일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신다면 마땅히 학교도서관부터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그 동안 대입위주의 교육에만 매달려 온 결과 학교도서관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그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미비한 지는 이미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로서는 '독서'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시려는 장관님께서 학교도서관과 나아가서 사서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를 '일축'했다는 언론보도를 참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기본조건이라는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작년 6월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하여 11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2002년까지 반드시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를 즐기게 위해 찾는 독서활동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제34조), 그리고

학교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제6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 각 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정원으로 둘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사회는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독서를 통한 창의력과 정보의 수합·가공·재생산 능력이 주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기교육이 가능한 학교교육을 만들고, 나아가 이러한 학교에서의 경험이 평생도록 스스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독서교육은 여타의 교과목처럼 이미 대학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연구와 훈련을 통해 능력을 갖춘 사서교사를 채용, 이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 배치 사정은 너무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1997년 초 파악된 바에 의하면 현재 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겨우 175명(법정정원 3,236명의 5.4%)이고, 이나마 서울(100명), 광주(33명), 전남(31명)이 총 164명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시·도는 통틀어 겨우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설치 및 사서교사 배치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이 법령을 집행해야할 실질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장관님께서 예산 등의 이유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시고 관련법령을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한 말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의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시는 장관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직 교육개혁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밝은 앞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러한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필요하다는 장관님의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관님께서도 현재 학교현장의 인력구조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이를 위한 사서교사 배치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되어, 감히 장관님께 우리협회의 입장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국가발전과 교육개혁을 위한 도서관계의 총정수로 이해해 주시고 이를 개혁적 차원에서 검토,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장관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이를 위한 사서교사 배치에 관련한 장관님과 귀 부의 정책적 견해를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장관님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드리오며, 앞으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우리협회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6월 일

한국도서관협회
회 장 추 도榮